심화

2023년도

제6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지

1. 밑줄 그은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었다.
②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③ 실을 뽑기 위해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하였다.
④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가 이용되었다.
⑤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거주하였다.

2.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니계상 참이 사람을 시켜 (가)의 왕 우거를 죽이고 와서 항복하였다. 그러나 왕검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기에 우거왕의 대신(大臣) 성기가 한(漢)에 반기를 들고 공격하였다. 좌장군은 우거왕의 아들 장과 항복한 상 노인의 아들 최로 하여금 그 백성을 달래고 성기를 주살하도록 하였다. 드디어 (가)을/를 평정하고 진번·임둔·낙랑·현도군을 설치하였다.
>
> –『한서』–

①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②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③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④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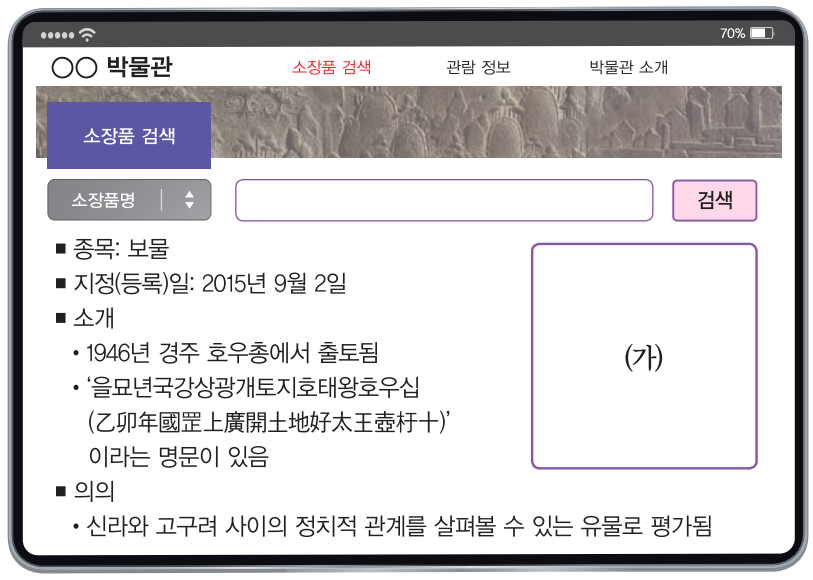
3.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백제의 수도 한성이 파괴되고 개로왕이 전사하였다. 그에 이어 즉위한 문주왕은 위기를 수습하고자 (가)(으)로 도읍을 옮겼다.

①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한 곳을 살펴본다.
②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 발굴된 곳을 답사한다.
③ 성왕이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곳을 검색한다.
④ 윤충이 의자왕의 명을 받아 함락시킨 곳을 지도에 표시한다.
⑤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신라군에 맞서 싸운 곳을 조사한다.

4.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② 
③ 
④ 
⑤ 

제6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5. 다음 상황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10월에 백제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왔다. 왕이 군대를 출정시켜 백제군을 막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이달 23일에 세상을 떠났다.

① 유리왕이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
② 미천왕이 낙랑군을 축출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③ 소수림왕이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④ 고국천왕이 을파소를 등용하고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⑤ 유주자사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가 환도성을 함락하였다.

6.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가) 당의 손인사, 유인원과 신라왕 김법민은 육군을 거느려 나아가고, 유인궤 등은 수군과 군량을 실은 배를 거느리고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으로 갔다. 백강 어귀에서 왜의 군사를 만나 …… 그들의 배 4백 척을 불살랐다.
>
> (나)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에 머물렀다. 신라군이 공격하여 달아나게 하고 말 3만여 필을 얻었는데, 노획한 병장기의 수도 그 정도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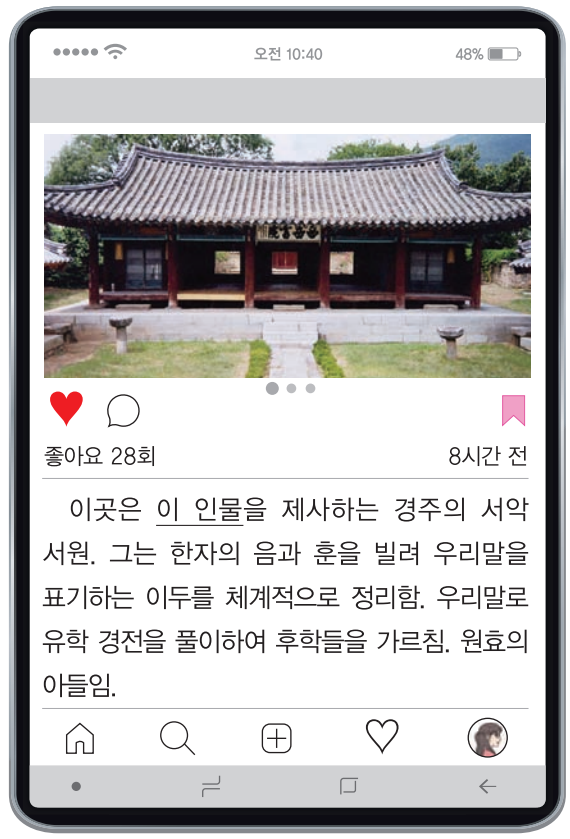
① 장문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② 원광이 왕명으로 걸사표를 작성하였다.
③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④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다.
⑤ 검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세워 부흥 운동을 벌였다.

7.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 조영이 죽으니, 이 나라에서는 고왕이라 하였다. 아들 무예가 왕위에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하니, 동북의 모든 오랑캐들이 겁을 먹고 그를 섬겼다.
>
> ○ 처음에 이 나라의 왕이 자주 학생들을 경사의 태학에 보내어 고금의 제도를 배우고 익혀 가더니, 드디어 해동성국이 되었다. 그 땅에는 5경 15부 62주가 있다.
>
> –『신당서』–

① 정사암 회의를 개최하였다.
②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③ 욕살, 처려근지 등의 지방관을 두었다.
④ 인안, 대흥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⑤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8. 밑줄 그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향가 모음집인 삼대목을 편찬하였다.
②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③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계를 제시하였다.
④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인문표를 지었다.
⑤ 국왕에게 조언하는 내용인 화왕계를 집필하였다.

9.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2점]



① 의창에서 곡식을 빌리는 백성
② 만권당에서 대담을 나누는 학자
③ 혜민국에서 약을 받아 가는 환자
④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는 승려
⑤ 청해진을 거점으로 해적을 소탕하는 병사

10.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탐구 활동 보고서 〉

○학년 ○반 이름: △△△

1. **주제**: (가), 안정과 통합을 꾀하다
2. **방법**: 『고려사』 사료 검색 및 분석
3. **사료 내용과 분석**

사료 내용	분석
명주의 순식이 투항하자 왕씨 성을 내리다.	지방 호족 포섭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반포하다.	관리의 규범 제시
흑창을 두어 가난한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다.	민생 안정

① 개국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② 외침에 대비하여 광군을 조직하였다.
③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④ 관학 진흥을 목적으로 양현고를 운영하였다.
⑤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하였다.

11.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

> 처음으로 12목을 설치하고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면서 매번 신하들의 충고를 구하고 있다. 낮은 곳의 이야기를 듣고 멀리 보고자 어질고 현명한 이들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 이에 수령들의 공로에 의지해 백성들의 바람에 부합하고자 한다. 「우서(虞書)」의 12목 제도를 본받아 시행하니, 주나라가 8백 년간 지속하였듯이 우리의 국운도 길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가)	(나)	(다)	(라)	(마)
918 고려 건국	945 왕규의 난	1009 강조의 정변	1196 최충헌 집권	1270 개경 환도	1351 공민왕 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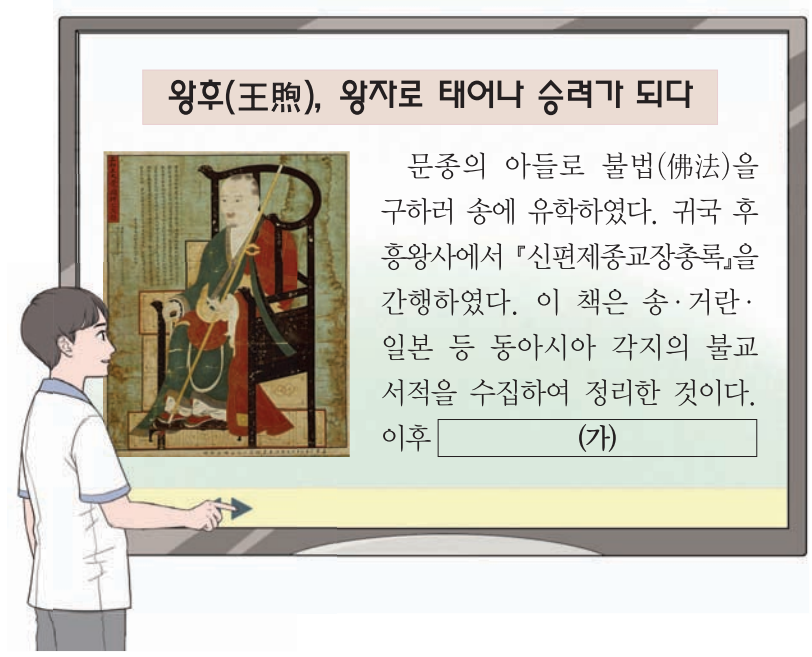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2. (가)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박위를 보내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② 조총 부대를 나선 정벌에 파견하였다.
③ 개경을 방어하기 위해 나성을 축조하였다.
④ 압록강 상류 지역을 개척하여 4군을 설치하였다.
⑤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변사를 신설하였다.

13.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국청사의 주지가 되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② 불교 개혁을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를 조직하였다.
③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④ 불교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집필하였다.
⑤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제6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14.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 (가) 왕이 보현원 문에 들어서자 …… 이고 등이 왕을 모시던 문관 및 대소 신료, 환관들을 모두 살해하였다. …… 정중부 등이 왕을 모시고 환궁하였다.
>
> (나) 이자겸과 척준경이 왕을 위협하여 남궁(南宮)으로 거처를 옮기게 하고 안보린, 최탁 등 17인을 죽였다. 이 외에도 죽인 군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
> (다) 묘청이 서경을 근거지로 삼고 반란을 일으켰다. ……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개, 그 군대를 천견충의군이라 불렀다.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⑤ (다) – (가) – (나)

15.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기철의 친척 기삼만이 권세를 믿고 불법으로 남의 토지를 빼앗았기에 정치도감에서 그를 잡아 장(杖)을 치고 하옥하였는데 20여 일 만에 죽었다. …… 그러자 정동행성 이문소에서 정치도감 관리들을 잡아 가두었다.

① 농사직설을 편찬하는 학자
② 초량 왜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③ 도평의사사에서 회의하는 관리
④ 규장각 검서관으로 근무하는 서얼
⑤ 빈공과 응시를 준비하는 6두품 유학생

16.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점]

> 명주의 정해현에서 순풍을 만나 3일이면 큰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고, 다시 5일이면 흑산도에 도달하여 그 경계에 들어간다. 흑산도에서 섬들을 지나 7일이면 예성강에 이른다. …… 거기서 3일이면 연안에 닿는데, 벽란정(碧瀾亭)이라는 객관이 있다. 사신은 여기에서부터 육지에 올라 험한 산길을 40여 리쯤 가면 (가) 의 수도에 도달한다.
>
> –『송사』–

①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②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주조되었다.
③ 동시전이 설치되어 시장을 감독하였다.
④ 계해약조가 체결되어 일본과 교역하였다.
⑤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하였다.

17.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수덕사 대웅전

② 
화엄사 각황전

③ 
부석사 무량수전

④ 
봉정사 극락전

⑤ 
법주사 팔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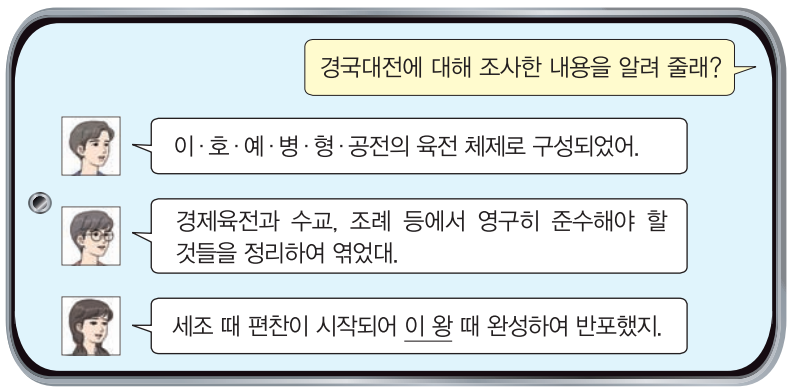
18.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①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②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③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④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가 용장산성에서 항전하였다.
⑤ 최우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하였다.

제6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19. 밑줄 그은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① 독립된 간쟁 기관으로 사간원이 설치되었다.
② 함길도 토착 세력인 이시애가 난을 일으켰다.
③ 직제가 개편된 홍문관에서 경연을 주관하였다.
④ 집현전 관리를 대상으로 사가독서제가 시행되었다.
⑤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20. ㉠~㉤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왕이 어려서 즉위하여 모후(母后)가 수렴청정을 하고, 사림 간에 큰 옥사가 연달아 일어난 데다가 ㉡요승(妖僧)을 높이고 사랑하여 불교를 숭상했으나 모두 왕의 뜻은 아니었다. …… ㉢부세는 무겁고 부역은 번거로웠으며 흉년으로 백성들이 고달프고 도적이 성행하여 국내의 재력이 고갈되었다. 그래서 왕이 비록 성덕(盛德)을 품었어도 끝내 하나도 펴지 못했으니 참으로 애석하다. 그러다가 ㉣문정왕후가 돌아가신 후에 국정을 주관하게 되자 …… ㉤을사사화 때 화를 당한 사람들을 풀어 주고 먼 곳으로 쫓겨난 사람들을 모두 내지로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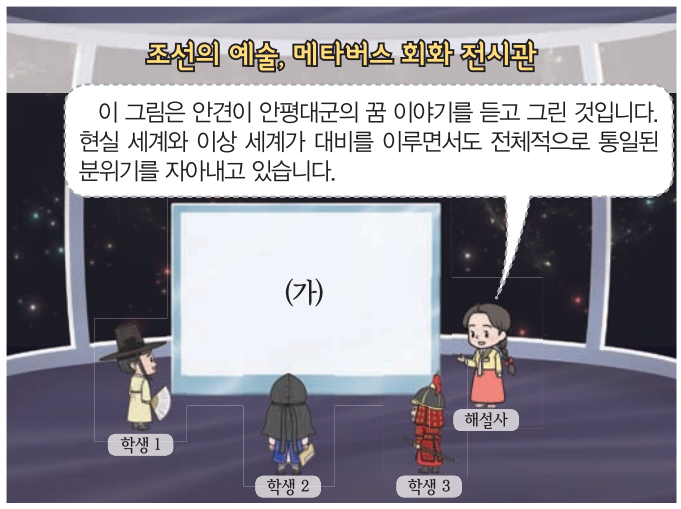
① ㉠ –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이유를 찾아본다.
② ㉡ – 황사영 백서 사건이 가져온 결과를 살펴본다.
③ ㉢ – 예송 논쟁의 발생 배경을 파악한다.
④ ㉣ – 갑술환국의 전개 양상을 정리한다.
⑤ ㉤ – 윤임 일파가 축출되는 과정을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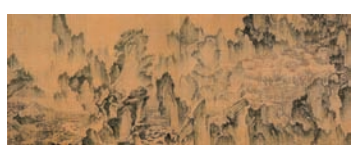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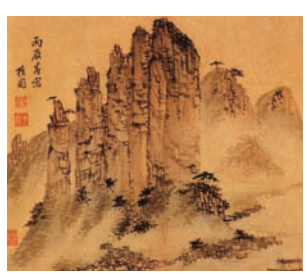
21.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1점]

> 교지를 내려 이르기를, "전날 성삼문 등이 상왕(上王)도 그 모의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자, 백관들이 상왕도 종사(宗社)에 죄를 지었으니 편안히 도성에 거주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였다. …… 상왕을 노산군(魯山君)으로 낮추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에 거주시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① 인조반정으로 북인 세력이 몰락하였다.
②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하였다.
③ 계유정난을 통해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④ 이인좌를 중심으로 한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⑤ 폐비 윤씨 사사 사건으로 인해 김굉필 등이 처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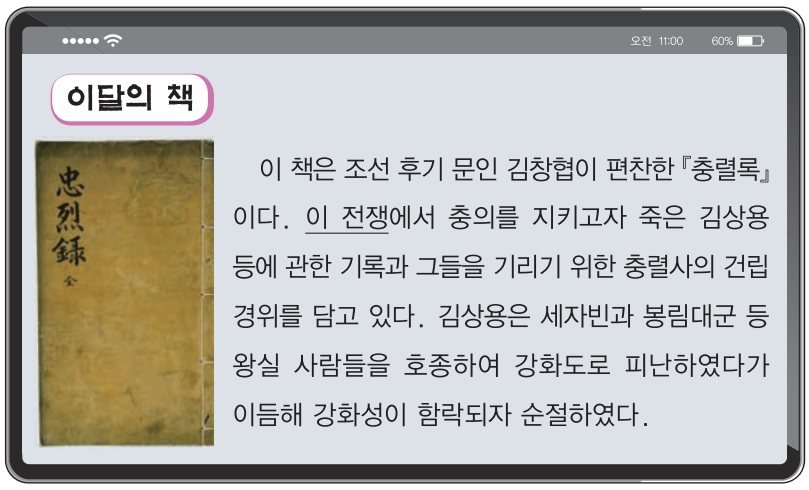
22. (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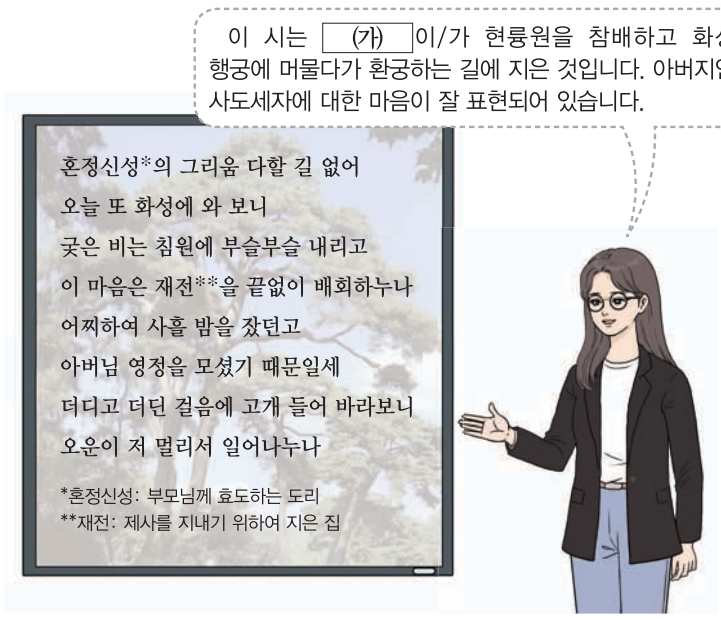
제6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23. 밑줄 그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①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② 강홍립이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③ 김준룡이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④ 김종서가 두만강 일대에 6진을 개척하였다.
⑤ 곽재우, 김천일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24.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청과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②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자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③ 왕실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④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려고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⑤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을 단행하였다.

25.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광해군 때 이원익이 방납의 폐단을 혁파하고자 선혜청을 두고 (가)을/를 실시할 것을 청하였다. …… 맨 먼저 경기도 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니 백성들은 대부분 편리하게 여겼다. 다만 권세가와 부호들은 방납의 이익을 잃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반대하였다.
>
> –『국조보감』–

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② 수신전과 휼양전을 폐지하였다.
③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④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하였다.
⑤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26.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가) 좌의정 박은이 상왕(上王)에게 아뢰기를, "이제 왜구가 중국에 들어가 도적질하고 본도로 돌아오는 것이 곧 이때이므로 마땅히 이종무 등으로 대마도에 나가 적이 섬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맞아서 치게 되면 적을 파함에 틀림없을 것이니, 진멸(殄滅)시킬 기회를 잃지 마소서."라고 하니, 상왕이 옳게 여겼다.

(나) 김방경이 중군을 거느리게 하고 홀돈과 홍다구와 더불어 일본을 정벌하게 하였다. 일기도(一岐島)에 이르러 천여 명을 죽이고 길을 나누어 진격하였다. 왜인들이 달아나는데 쓰러진 시체가 마치 삼대와 같았다. 날이 저물어 이내 공격을 늦추었는데 마침 밤에 태풍이 크게 불어서 전함들이 많이 부서졌다.

(다) 왜구가 배 5백 척을 이끌고 진포 입구에 들어와서는 큰 밧줄로 배를 서로 잡아매고 병사를 나누어 지키다가, 해안에 상륙하여 여러 고을로 흩어져 들어가 불을 지르고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 나세, 심덕부, 최무선 등이 진포에 이르러, 최무선이 만든 화포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그 배들을 불태웠다.

(라) 왜장이 군사 수만 명을 모두 동원하여 진주성을 포위하였는데 성 안의 군사는 3천여 명이었다. 진주 목사 김시민이 여러 성첩을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 …… 10여 일 동안 4~5차례 큰 전투를 벌이면서 안팎에서 힘껏 싸웠으므로 적이 먼저 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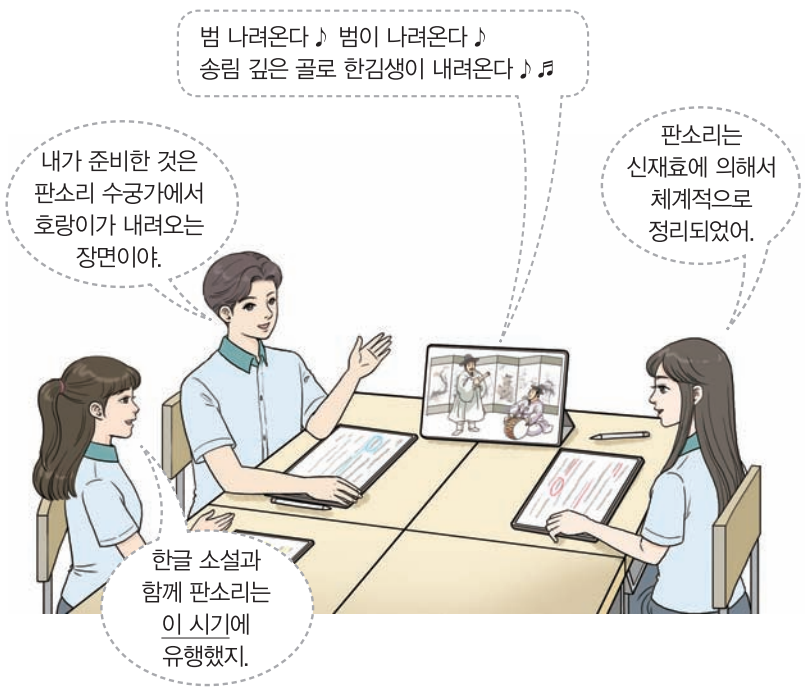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다) – (나) – (라)
③ (나) – (가) – (라) – (다)　④ (나) – (다) – (가) – (라)
⑤ (다) – (라) – (나) – (가)

27.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마과회통에서 홍역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였다.
②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③ 발해고에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④ 곽우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하였다.
⑤ 금석과안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28. 밑줄 그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점]



① 주자소에서 계미자를 만드는 장인
② 송파장에서 산대놀이를 공연하는 광대
③ 대규모 자본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도고
④ 시사를 조직하여 작품 활동을 하는 중인
⑤ 인삼, 담배 등을 상품 작물로 재배하는 농민

29.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대왕대비전이 전교하기를, "익성군이 이제 입궁하였으니, 흥선 대원군과 부대부인의 봉작을 내리는 것을 오늘 중으로 거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나) 종로에 비석을 세웠다. 그 비에서 이르기를,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즉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함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고 하였다.

①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② 일본의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③ 러시아가 용암포에 대한 조차를 요구하였다.
④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⑤ 미국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후 푸트 공사를 파견하였다.

3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② 조선 총독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③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났다.
④ 홍범 14조를 기본 개혁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⑤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6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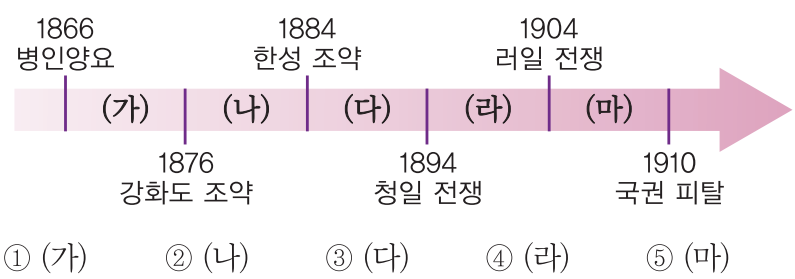
31.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가) 복합 상소 이후에도 "물러나면 원하는 바를 시행할 것이다."라던 국왕의 약속과 달리 관리들의 참학이 날로 심해졌다. …… 최시형은 도탄에 빠진 교도들을 구하고 최제우의 억울함을 씻기 위해 보은 집회를 개최하였다.
>
> (나) 동학 농민군은 거짓으로 패한 것처럼 꾸며 황토현에 진을 쳤다. 관군은 밀고 들어가 그 아래에 진을 쳤다. …… 농민군이 삼면을 포위한 채 한쪽 모퉁이만 빼고 크게 함성을 지르며 압박하자 관군은 일시에 무너졌다.

① 논산으로 남접과 북접이 집결하였다.
②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교정청이 설치되었다.
③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였다.
④ 고부 농민들이 조병갑의 탐학에 맞서 만석보를 파괴하였다.
⑤ 공주 우금치에서 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배하였다.

32.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 **전보 제 ○○○호**
>
> **발신인: 외무대신 하야시**
> **수신인: 통감 이토**
>
> 네덜란드에 파견된 전권 대사 쓰즈키가 보낸 전보 내용임. 한국인 3명이 이곳에 머물면서 평화 회의의 위원 대우를 받고자 진력하고 있다고 함. 그들은 오늘 아침 러시아 수석 위원 넬리도프를 방문하려 했는데, 넬리도프는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평화 회의 위원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는 만나지 않겠다고 함. 이들은 일본이 한국에 시행한 정책에 대해 항의서를 인쇄하여 각국 수석 위원(단, 영국 위원은 제외한 것으로 보임)에게도 보냈다고 함.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33. 다음 의병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허위를 군사장으로 삼아 …… 각 도에 격문을 전하니 전국에서 불철주야 달려온 지원자들이 만여 명이더라. 이에 서울로 진군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 먼저 이인영은 심복을 보내 각국 영사에게 진군의 이유를 상세히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각 도의 의병으로 하여금 일제히 진군하게 하였다.

① 조선 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다.
② 이만손이 주도하여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③ 상덕태상회를 통하여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④ 일본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⑤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결성되었다.

34. 다음 상소가 작성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곳 유리창과 분칠한 담장은 화려하지만 그을음 나는 석탄을 때는 전돌(甎堗)은 옥체를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듯합니다. …… 온 나라 신하들의 심정을 염두에 두시어 간하는 말을 따라 바로 환궁하여 끓어오르는 여론에 부응하시고 영원히 누릴 태평의 터전을 공고히 만드소서.



①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②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③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④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났다.
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35.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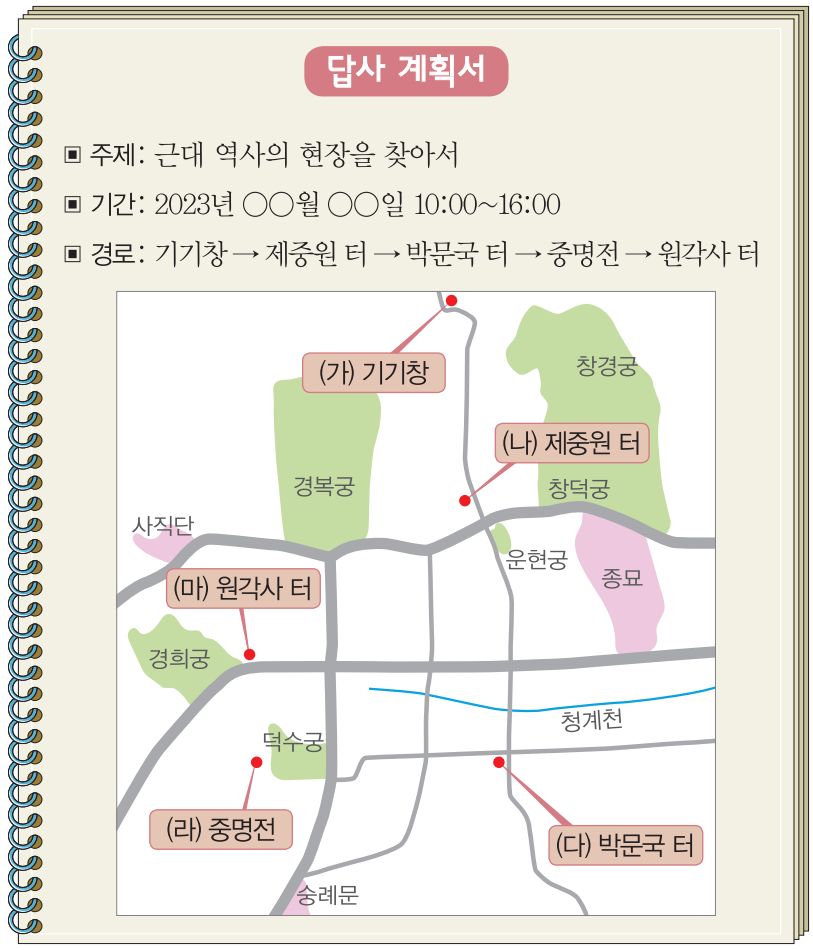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⑤ (다) – (가) – (나)

36.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정우회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되었다.
②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③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④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 운동을 전개하였다.
⑤ 태극 서관을 운영하여 계몽 서적 등을 보급하였다.

37.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 간행되었다.
② (나) – 고종의 황제 즉위식이 거행된 장소이다.
③ (다) – 백동화가 주조되었다.
④ (라) –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⑤ (마) – 나운규의 아리랑이 처음 상영된 곳이다.

38. 다음 판결이 내려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판결문

피 고 인: 박○○
주　　문: 피고인을 태 90에 처한다.
이　　유
피고 박○○은 이○○가 '구한국의 국권 회복을 도모한다.'고 각지를 돌아다니며 유세한 것에 찬동하였다. …… 법률에 비추어 보니 피고의 소행은 …… 태형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조선 태형령 제1조, 제4조에 준하여 처단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① 원수부가 설치되었다.
②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③ 치안 유지법이 적용되었다.
④ 헌병 경찰제가 실시되었다.
⑤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제6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9. ㉠~㉤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역사 돋보기 **한국 교육의 역사**

삼국 시대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제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때 교재는 유학 경전과 역사서가 중심이었다.

고려 시대에 와서 과거제가 실시되었다. 조상의 음덕을 입은 관직 진출도 있었지만, 과거에 합격하는 것을 영예롭게 여기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학인 국자감 못지 않게 ㉡사학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 시대의 교육 기관은 ㉢관학으로 성균관·향교 등이 있었고, 사학으로 서원 등이 있었다. 국가는 교육을 통해 성리학의 이념을 확산시키고, 통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19세기 말 서구 문물을 접하면서 교육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는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고 행정의 실무를 담당할 필요에서 학교를 설치하였다.

갑오개혁 때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된 이후에는 각종 관립 학교가 세워져 교육을 담당하였다. 한편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전파하고 서양 문화를 보급하려고 학교 설립에 앞장섰다.

① ㉠ – 태학의 설립 취지를 찾아본다.
② ㉡ – 9재 학당의 수업 내용을 조사한다.
③ ㉢ – 명륜당과 대성전의 기능을 알아본다.
④ ㉣ – 동문학과 육영 공원의 운영 목적을 분석한다.
⑤ ㉤ – 배재 학당, 이화 학당의 설립 시기를 파악한다.

40. 다음 법령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제1조 조선에서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제2조 국어[일본어]를 상용(常用)하는 자의 보통 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 여학교령에 의한다.
제3조 국어[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에게 보통 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 보통학교 및 여자 고등 보통학교로 한다.
제5조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6세 이상으로 한다.

① 서당 규칙이 제정되었다.
② 2·8 독립 선언이 발표되었다.
③ 조선어 연구회가 결성되었다.
④ 조선 여자 교육회가 조직되었다.
⑤ 조선 민립 대학 설립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41. (가) 정부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도내 관공서의 조선인 관리·기타 조선인 부호 등에게 빈번하게 불온 문서를 배부하는 자가 있어서 수사한 결과 이○○의 소행으로 판명되어 그의 체포에 노력하고 있다. …… 그는 (가)의 교통부 차장과 재무부 총장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명령을 받았다. 조선에 돌아가서 인쇄물을 뿌리는 등 인심을 교란하는 동시에 (가)이/가 발행한 독립 공채를 판매하는 한편, 조선 내부와의 연락 및 기타 기관을 충분히 갖추게 하는 것 등이었다.

–『고등 경찰 요사』–

① 무장 투쟁을 위해 중광단을 결성하였다.
② 민족 교육을 위해 서전서숙을 설립하였다.
③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 강습소를 세웠다.
④ 외교 활동을 위해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였다.
⑤ 농촌 계몽을 위해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42.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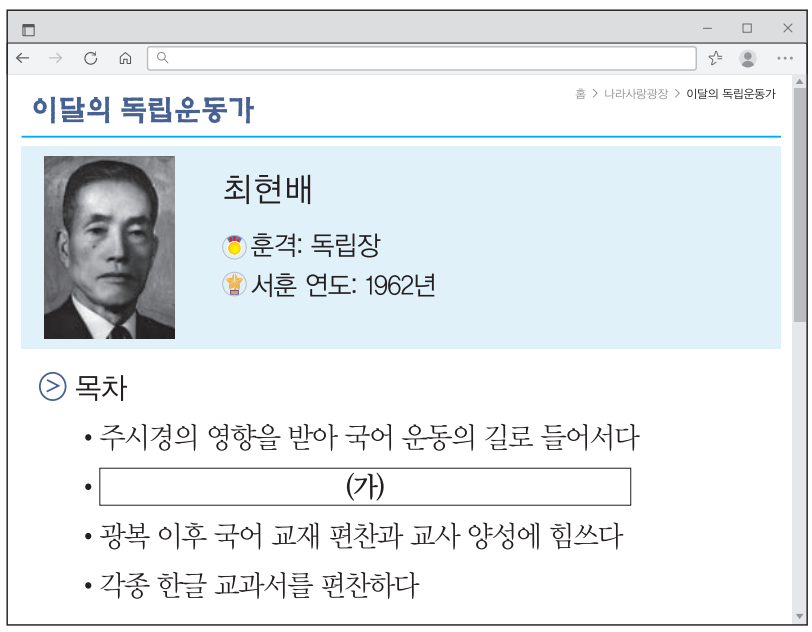
① 원산 총파업이 발생하였다.
②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③ 조선 형평사가 결성되었다.
④ 국가 총동원법이 시행되었다.
⑤ 임시 토지 조사국이 설립되었다.

4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자유시 참변으로 시련을 겪었다.
② 대원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
③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④ 독립군 양성 기관인 한인 소년병 학교를 설립하였다.
⑤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44.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점]



①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다
②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다
③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다
④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저술하다
⑤ 일제에 의해 조작된 105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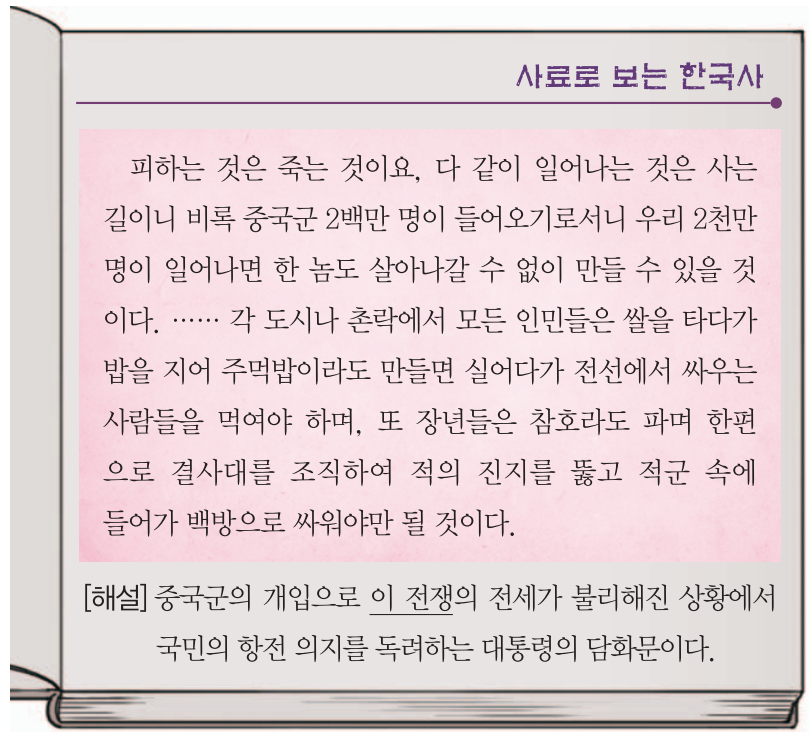
45. 다음 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좌우 합작 위원회가 주도하였다.
ㄴ. 장면 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ㄷ. 제주도에서 무효 처리된 선거구가 있었다.
ㄹ.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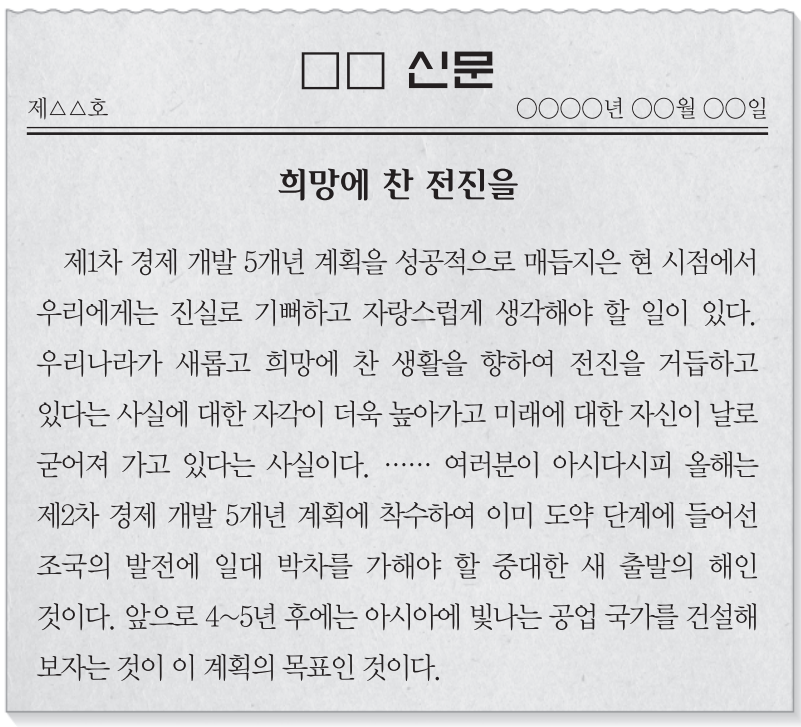
46. 밑줄 그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①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② 부산이 임시 수도로 정해졌다.
③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졌다.
④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이 발생하였다.
⑤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제6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7.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



□□ 신문

제△△호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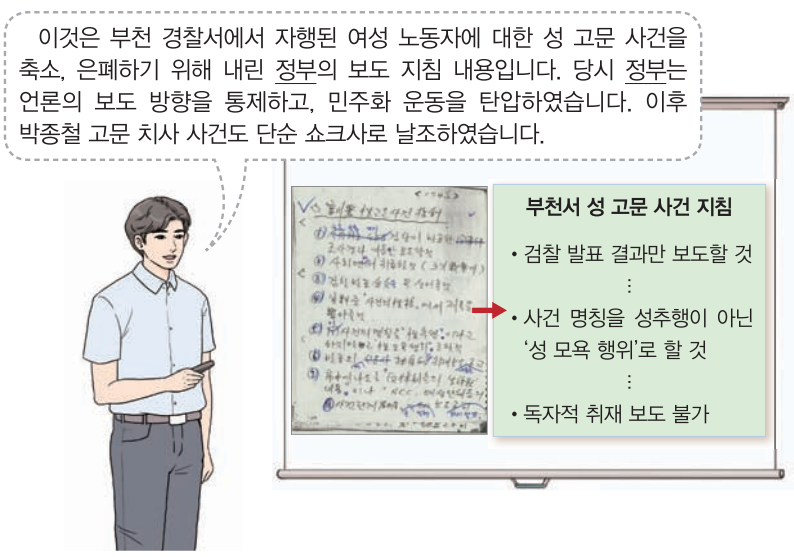
희망에 찬 전진을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은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진실로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나라가 새롭고 희망에 찬 생활을 향하여 전진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더욱 높아가고 미래에 대한 자신이 날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올해는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하여 이미 도약 단계에 들어선 조국의 발전에 일대 박차를 가해야 할 중대한 새 출발의 해인 것이다. 앞으로 4~5년 후에는 아시아에 빛나는 공업 국가를 건설해 보자는 것이 이 계획의 목표인 것이다.

(가)	(나)	(다)	(라)	(마)
1949 농지 개혁법 제정	1965 한일 협정 체결	1977 100억 달러 수출 달성	1988 서울 올림픽 개최	1996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2007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48. 밑줄 그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① 야당 총재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었다.
②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③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기반으로 군정이 실시되었다.
④ 평화 통일론을 내세우던 진보당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⑤ 긴급 조치 철폐 등을 포함한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49.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유형원이 반계수록을 저술한 장소를 답사한다.
② 견훤이 아들 신검에 의해 유폐된 장소를 알아본다.
③ 동학 농민군이 정부와 화약을 맺은 장소를 조사한다.
④ 기묘사화로 유배된 조광조가 사사된 장소를 검색한다.
⑤ 임병찬이 의병을 일으킨 무성 서원이 있는 장소를 찾아본다.

50.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통일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②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③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합의하였다.
④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
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하였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65회 심화 정답과 해설

정답표

1	2	3	4	5	6	7	8	9	10
②	⑤	②	①	③	⑤	④	⑤	⑤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①	④	③	②	①	③	③	⑤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③	①	③	⑤	⑤	④	④	①	④	⑤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④	⑤	⑤	③	①	③	④	④	⑤	⑤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④	④	②	①	⑤	②	②	②	③	②

공식 공개 시험지 · 봄기출 문항별 해설

1 선사 · 청동기 시대 정답 ②

① X 해설 소를 부려 땅을 깊게 가는 깊이갈이(우경)는 신라 지증왕 때 장려되었고,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널리 퍼졌다. 자료의 송국리 유적은 비파형 동검과 민무늬 토기가 나온 청동기 시대 마을이므로,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다.

② O 해설 자료에 사유 재산과 계급이 생겨났다고 했고, 비파형 동검과 민무늬 토기가 나온 송국리 유적을 소개했으니 이 시대는 청동기 시대다. 청동기 시대에는 힘센 지배자가 많은 사람을 부려 큰 돌을 옮겨 고인돌을 만들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

③ X 해설 실을 뽑는 가락바퀴를 처음 쓴 것은 신석기 시대다. 신석기 사람들은 가락바퀴와 뼈바늘로 옷감을 짜고 옷을 지었다. 청동기 시대보다 앞선 일이다.

④ X 해설 쟁기와 쇠스랑 같은 쇠로 만든 농기구는 철기가 퍼진 뒤에 쓰였다. 청동기 시대에는 반달 돌칼 같은 간석기로 곡식을 거두었다.

⑤ X 해설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며 옮겨 다닌 것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송국리 유적처럼 움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 한곳에 머물러 살았다.

2 선사 · 위만 조선과 멸망 정답 ⑤

① X 해설 동맹은 해마다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고구려의 행사다. 자료에서 한나라가 우거왕을 죽이고 그 땅에 진번·임둔·낙랑·현도군을 두었다고 했으니 (가)는 고조선이다. 동맹은 고조선의 풍습이 아니다.

② X 해설 소도는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던 신성한 곳으로, 삼한에 있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쳐 들어가도 잡아가지 못했다. 고조선의 모습이 아니다.

③ X 해설 다른 마을의 경계를 넘어 들어가면 소나 말, 노비로 갚게 한 책화는 동예의 풍습이다. 고조선이 아니다.

④ X 해설 마가·우가·저가·구가 같은 여러 가(加)가 사출도를 따로 다스린 나라는 부여다. 고조선의 정치 모습이 아니다.

⑤ O 해설 우거왕은 위만의 손자로,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다. 고조선은 사회 질서를 지키려고 범금 8조(8조법)를 두었는데, 지금은 사람을 죽이면 사형,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갚기, 도둑질하면 노비로 삼기 세 조목만 전한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

3 고대 · 백제의 위기와 중흥 정답 ②

① X 해설 익산에 미륵사를 세운 왕은 백제 무왕이다. 자료에서 문주왕이 한성을 잃은 뒤 도읍을 옮긴 곳이라 했으니 (가)는 웅진(지금의 공주)이다. 미륵사는 웅진이 아닌 익산에 있다.

② O 해설 475년 고구려 장수왕에게 한성을 빼앗기고 개로왕이 죽자, 문주왕은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웅진에 해당하는 공주 송산리에서는 1971년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인 무령왕릉이 발굴되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

③ X 해설 성왕이 신라와 싸우다 죽은 곳은 관산성(지금의 충북 옥천)이다. 554년의 일로, 웅진과는 관계가 없다.

④ X 해설 윤충이 의자왕의 명을 받아 함락시킨 곳은 신라의 대야성(지금의 경남 합천)이다. 642년의 일로, 백제의 도읍 웅진이 아니다.

⑤ X 해설 계백이 결사대 5천 명을 이끌고 신라군과 싸운 곳은 황산벌(지금의 충남 논산)이다. 660년 백제가 망하기 직전의 일로, 웅진이 아니다.

4 고대 ·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정답 ①

① O 해설 사진은 뚜껑 달린 청동 그릇으로, 1946년 경주 호우총에서 나온 호우명 그릇이다. 그릇 바닥에 광개토왕을 기리는 글자와 을묘년(415년)이 새겨져 있다. 고구려에서 만든 그릇이 신라 무덤에서 나와, 그 무렵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맞는 사진이다.

② X 해설 사진은 머리에 쇠로 만든 뿔이 달린 돌짐승으로, 공주 무령왕릉에서 나온 석수다. 무덤을 지키라고 놓아 둔 백제 유물이며, 광개토왕의 이름이 새겨진 청동 그릇이 아니다.

③ X 해설 사진은 칼 몸 양쪽에 가지가 세 개씩 뻗은 칠지도다. 백제가 왜(일본)에 보낸 칼로, 백제와 왜가 가깝게 지냈음을 보여 준다. 호우총에서 나온 청동 그릇이 아니다.

④ X 해설 사진은 큰 광배를 등에 진 채 서 있는 금동 불상으로, 연가 7년명 금동 여래 입상으로 보인다. 고구려에서 만든 불상이지만 그릇이 아니며, 호우총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⑤ X 해설 사진은 말 탄 사람 모양의 토기로, 경주 금령총에서 나온 기마 인물형 토기다. 신라의 토기이며, 광개토왕의 이름이 새겨진 청동 그릇이 아니다.

5 고대 · 고구려의 위기와 중흥 정답 ③

① X 해설 유리왕이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긴 것은 서기 3년의 일이다. 자료는 백제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해 고국원왕이 화살에 맞아 죽은 371년의 일이므로, 그보다 훨씬 앞선다.

② X 해설 미천왕이 낙랑군을 몰아낸 것은 313년이다. 고국원왕이 전사한 371년보다 앞선 일이다.

③ O 해설 자료는 371년 백제의 공격으로 고국원왕이 전사한 일이다. 뒤를 이은 소수림왕은 위기를 수습하려고 372년 불교를 받아들이고 태학을 세웠으며, 373년 율령을 반포하였다. 그래서 이 상황 이후의 일로 맞다.

④ X 해설 고국천왕이 을파소를 등용하고 가난한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을 실시한 것은 194년이다. 371년보다 앞선 일이다.

⑤ X 해설 위나라 유주자사 관구검의 군대가 환도성을 함락한 것은 동천왕 때인 3세기 중엽(244~245년 무렵)이다. 고국원왕이 전사하기 전의 일이다.

6 고대 · 신라의 삼국 통일 정답 ⑤

① X 해설 장문휴가 바다를 건너 당의 등주를 공격한 것은 732년 발해 무왕 때다. (나)의 매소성 싸움(675)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

② X 해설 원광이 진평왕의 명으로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는 걸사표를 쓴 것은 608년이다. (가)의 백강 싸움(663)보다 앞선다.

③ X 해설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를 크게 무찌른 것은 612년이다. (가)의 백강 싸움(663)보다 앞선 일이다.

④ X 해설 김춘추가 당에 가서 군사 동맹을 맺은 것은 648년이다. 이 동맹으로 나당 연합군이 만들어졌으니 (가)보다 앞선 일이다.

⑤ O 해설 (가)는 663년 나당 연합군이 백강 어귀에서 백제 부흥군을 돕던 왜의 배 4백 척을 불태운 싸움이고, (나)는 675년 신라군이 매소성에서 이근행의 당군을 물리친 싸움이다. 그 사이인 670년 검모잠은 안승을 왕으로 세우고 고구려 부흥 운동을 벌였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

7 고대 · 발해의 건국과 발전 정답 ④

① X 해설 정사암 회의는 귀족들이 바위에 모여 재상을 뽑던 백제의 제도다. 자료에서 대조영(고왕)과 아들 무예(무왕), 해동성국, 5경 15부 62주를 말했으니 이 나라는 발해다. 정사암 회의는 발해의 제도가 아니다.

7 해설 계속 정답 ④

② X 해설 9서당 10정은 통일 신라의 군사 조직이다. 9서당은 중앙군, 10정은 지방군이었다. 발해가 아니다.

③ X 해설 욕살, 처려근지는 고구려의 지방관 이름이다. 발해의 지방은 5경 15부 62주로 나누어 다스렸다.

④ O 해설 자료의 대조영, 무예, 해동성국, 5경 15부 62주는 모두 발해를 가리킨다. 발해는 무왕 때 인안, 문왕 때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써서 당과 대등한 나라임을 드러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

⑤ X 해설 광평성은 궁예가 세운 태봉(후고구려)의 최고 정치 기구다. 발해의 중앙 기구는 3성 6부(정당성·선조성·중대성)였다.

8 고대 · 통일 신라의 유학과 학문 정답 ⑤

① X 해설 향가를 모은 삼대목은 신라 진성 여왕 때 각간 위홍과 대구 화상이 엮었다. 자료에서 원효의 아들이고 이두를 정리했다고 했으니 이 인물은 설총이다. 삼대목은 설총의 일이 아니다.

② X 해설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린 사람은 6두품 학자 최치원이다. 설총이 아니다.

③ X 해설 화랑이 지킬 다섯 가지 규범인 세속 5계를 지은 사람은 승려 원광이다. 설총의 일이 아니다.

④ X 해설 외교 문서를 잘 써서 청방인문표를 지은 사람은 강수다. 강수도 신라의 유학자이지만 설총과는 다른 사람이다.

⑤ O 해설 설총은 원효의 아들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는 이두를 정리하고 우리말로 유학 경전을 풀어 가르쳤다. 또 꽃을 사람에 빗대어 왕에게 바른 정치를 권하는 화왕계를 지어 신문왕에게 들려주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

9 고대 · 신라 하대의 혼란과 호족 정답 ⑤

① X 해설 의창은 고려 성종이 흑창을 고쳐 만든 곡식 창고로, 가난한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 자료에서 혜공왕이 죽은 뒤 왕위 다툼이 심하던 때라고 했으니 이 시기는 신라 하대다. 의창은 고려의 기관이므로 맞지 않다.

② X 해설 만권당은 고려 충선왕이 원나라 수도에 세운 곳으로, 고려와 원의 학자들이 모여 학문을 나누었다. 고려 후기의 일이다.

③ X 해설 혜민국은 고려 예종 때 세운 기관으로, 가난한 백성에게 약을 나누어 주었다. 신라 하대의 모습이 아니다.

9 해설 계속 정답 ⑤

④ X 해설 화엄일승법계도는 의상이 화엄 사상을 시로 정리한 글로, 삼국 통일 무렵에 지었다. 왕위 다툼이 심하던 신라 하대보다 앞선 시기다.

⑤ O 해설 혜공왕이 죽은 780년 뒤 신라는 진골 귀족끼리 왕위를 다투는 하대로 접어들었다. 이 무렵인 828년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세워 해적을 물리치고 바닷길을 장악했으며, 민애왕을 몰아내는 데에도 힘을 보탰다. 그래서 맞는 모습이다.

10 고려 · 태조 왕건의 정책 정답 ①

① O 해설 자료에서 명주의 순식에게 왕씨 성을 내리고 정계·계백료서를 지었으며 흑창을 두었다고 했으니 (가)는 고려 태조 왕건이다. 태조는 나라를 세우는 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역분전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

② X 해설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 광군을 만든 것은 정종 때인 947년이다. 태조의 일이 아니다.

③ X 해설 광덕, 준풍 같은 독자적인 연호를 쓴 왕은 광종이다. 광종은 노비안검법과 과거 제도도 시행했다.

④ X 해설 국학을 살리려고 장학 재단인 양현고를 둔 것은 예종 때다. 태조의 일이 아니다.

⑤ X 해설 주전도감을 두어 해동통보 같은 쇠돈을 만든 것은 숙종 때다. 태조의 일이 아니다.

11 고려 · 성종과 유교 정치 정답 ②

① X 해설 (가)는 고려가 세워진 918년부터 왕규의 난이 일어난 945년까지다. 자료의 12목 설치는 983년 성종 때 일이므로 이 시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② O 해설 자료는 처음으로 12목을 두고 지방관을 보낸 일이다.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983년 전국의 주요 지역 12곳에 목을 두고 목사를 보냈다. 983년은 왕규의 난(945)과 강조의 정변(1009) 사이이므로 (나)가 맞다.

③ X 해설 (다)는 강조의 정변(1009)부터 최충헌이 권력을 잡은 1196년까지다. 12목은 그보다 앞선 983년에 두었다.

④ X 해설 (라)는 최충헌 집권(1196)부터 개경 환도(1270)까지의 무신 정권 시기다. 성종의 12목 설치(983)와는 거리가 멀다.

⑤ X 해설 (마)는 개경 환도(1270)부터 공민왕이 왕이 된 1351년까지의 원 간섭기다. 12목 설치는 그보다 훨씬 앞선 성종 때 일이다.

12 고려 · 거란의 침입과 항쟁 정답 ③

① X 해설 박위가 배를 이끌고 쓰시마(대마도)를 친 것은 1389년 고려 말로, 왜구를 막기 위해서였다. 자료의 현종이 나주로 피난하고 초조대장경을 새기게 한 (가)는 거란이므로 맞지 않다.

② X 해설 조총 부대를 보낸 나선 정벌은 조선 효종 때 청의 요청으로 러시아와 싸운 일이다. 거란과는 관계가 없다.

③ O 해설 자료에서 현종이 (가)의 침입으로 나주까지 피난했다고 했으니 (가)는 거란이다.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물리친 뒤 강감찬의 건의에 따라 개경 바깥에 성곽인 나성을 쌓아 수도를 지켰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

④ X 해설 압록강 상류를 개척하여 4군을 둔 것은 조선 세종 때로, 여진을 몰아내기 위해서였다. 거란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

⑤ X 해설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비변사는 조선 중종 때 왜구와 여진에 대비하려고 처음 두었다. 고려가 거란에 맞선 일이 아니다.

13 고려 · 의천과 천태종 정답 ①

① O 해설 자료에서 문종의 아들로 송에 유학하고 흥왕사에서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펴냈다고 했으니 이 사람은 대각국사 의천이다. 의천은 국청사의 주지가 되어 해동 천태종을 열고, 교종과 선종을 하나로 아우르려 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다.

② X 해설 불교를 바로 세우자며 수선사 결사를 만든 사람은 지눌이다. 무신 집권기의 일로, 의천이 아니다.

③ X 해설 선문염송집을 엮고 유교와 불교가 다르지 않다는 유불 일치설을 편 사람은 지눌의 제자 혜심이다. 의천이 아니다.

④ X 해설 불교 이야기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쓴 사람은 고려 후기의 승려 일연이다. 의천의 일이 아니다.

⑤ X 해설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돌아보고 왕오천축국전을 남긴 사람은 신라의 승려 혜초다. 의천이 아니다.

14 고려 · 문벌 귀족 사회 정답 ④

① X 해설 (가)는 1170년 보현원에서 정중부 등 무신들이 문신을 죽인 무신 정변이다. (나) 이자겸의 난(1126)과 (다) 묘청의 난(1135)보다 뒤의 일이므로 (가)가 맨 앞에 올 수 없다.

② X 해설 (가) 무신 정변은 1170년으로 셋 가운데 가장 늦다. (가)로 시작하는 순서는 틀렸다.

14 해설 계속 정답 ④

③ X 해설 (나) 이자겸의 난(1126)이 가장 먼저인 것은 맞다. 그러나 (가) 무신 정변(1170)은 (다) 묘청의 난(1135)보다 뒤이므로 (가)가 가운데 올 수 없다.

④ O 해설 (나)는 1126년 이자겸과 척준경이 인종을 위협하고 반대파를 죽인 이자겸의 난, (다)는 1135년 묘청이 서경에서 나라 이름을 대위라 하고 일으킨 난, (가)는 1170년 무신들이 보현원에서 문신을 죽인 무신 정변이다. 그래서 (나)-(다)-(가)가 맞는 순서다.

⑤ X 해설 (다) 묘청의 난(1135)은 (나) 이자겸의 난(1126)보다 뒤에 일어났다. 그래서 (다)로 시작하는 순서는 틀렸다.

15 고려 · 원 간섭기 정답 ③

① X 해설 농사직설은 조선 세종 때 우리 땅에 맞는 농사법을 모아 펴낸 책이다. 자료에서 기철의 친척을 정치도감이 벌하자 정동행성 이문소가 관리들을 잡아갔다고 했으니 원 간섭기다. 조선의 일은 맞지 않다.

② X 해설 부산의 초량 왜관은 조선 후기에 일본과 무역하던 곳이다. 원 간섭기의 모습이 아니다.

③ O 해설 자료는 기철 같은 친원 세력이 힘을 쓰던 원 간섭기의 일이다. 이 무렵 충렬왕 때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이름을 바꾸고, 높은 관리들이 모여 나랏일을 의논하는 최고 기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다.

④ X 해설 규장각에 검서관을 두고 서얼 출신 학자를 뽑은 것은 조선 정조 때다. 원 간섭기의 일이 아니다.

⑤ X 해설 빈공과는 당나라가 외국인을 위해 연 과거 시험으로, 신라 하대의 6두품 유학생들이 많이 응시했다. 고려 원 간섭기의 모습이 아니다.

16 고려 · 고려의 산업과 화폐 정답 ②

① X 해설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를 둔 나라는 고구려다. 자료에서 송나라 사신이 흑산도와 예성강을 거쳐 벽란정에서 육지에 올라 수도에 닿는다고 했으니 (가)는 고려다. 부경은 고려의 모습이 아니다.

② O 해설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로 송나라 사신이 드나든 나라는 고려다. 고려 숙종 때는 우리 땅 모양을 본떠 은으로 만든 큰 돈인 은병을 만들었는데, 입구가 넓다고 하여 활구라고 불렀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

③ X 해설 동시전은 신라 지증왕 때 수도 경주의 시장을 감독하려고 둔 관청이다. 고려가 아니다.

16 해설 계속 정답 ②

④ X 해설 계해약조는 1443년 조선 세종 때 쓰시마와 맺은 약속으로, 무역하는 배와 쌀의 양을 정했다. 고려의 일이 아니다.

⑤ X 해설 광산을 전문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나타난 것은 조선 후기다. 상인이 돈을 대고 덕대가 일꾼을 부려 광산을 운영했다.

17 고려 · 고려의 건축과 석탑 정답 ①

① O 해설 자료에서 충청남도 예산에 있고, 맞배지붕에 주심포 양식이며, 묵서명으로 충렬왕 34년(1308)에 지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 건물은 수덕사 대웅전이다. 고려 시대 목조 건축물로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그래서 맞는 사진이다.

② X 해설 구례 화엄사 각황전은 임진왜란 때 불탄 뒤 조선 숙종 때 다시 지은 2층 불전이다. 지붕을 받치는 장식이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이며, 예산에 있는 고려 건물이 아니다.

③ X 해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고려 시대의 주심포 양식 건물이다. 그러나 지붕이 맞배지붕이 아닌 팔작지붕이고, 경상북도 영주에 있다.

④ X 해설 안동 봉정사 극락전도 맞배지붕에 주심포 양식인 고려 시대 건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꼽힌다. 그러나 경상북도 안동에 있으므로 예산의 건물이 아니다.

⑤ X 해설 보은 법주사 팔상전은 임진왜란 뒤 조선 후기에 다시 세운 5층 목탑이다. 지금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목조 5층 탑이며, 고려 시대 건물이 아니다.

18 고려 · 신진 사대부와 고려의 멸망 정답 ③

① X 해설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쳐서 동북 9성을 쌓은 것은 1107년 예종 때다. 자료의 요동 정벌(1388)보다 훨씬 앞선 일이다.

② X 해설 서희가 거란 장수 소손녕과 담판하여 강동 6주를 얻은 것은 993년이다. 요동 정벌보다 앞선 일이다.

③ O 해설 자료는 명이 철령 이북 땅을 차지하려 하자 우왕이 최영에게 요동 정벌을 명한 1388년의 일이다. 요동으로 가던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돌아와 최영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다. 그래서 이 대화 이후의 일로 맞다.

④ X 해설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가 진도 용장산성에서 몽골에 맞선 것은 1270년대 초다. 요동 정벌보다 앞선 일이다.

18 해설 계속 정답 ③

⑤ X 해설 최우가 몽골의 침입을 피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것은 1232년이다. 요동 정벌보다 훨씬 앞선다.

19 조선전기 · 세조와 성종 정답 ③

① X 해설 사간원이 독립된 간쟁 기관이 된 것은 조선 태종 때다. 자료에서 세조 때 시작한 경국대전을 완성해 반포한 왕이라 했으니 이 왕은 성종이다. 사간원 독립은 성종 때의 일이 아니다.

② X 해설 함길도의 토착 세력 이시애가 난을 일으킨 것은 1467년 세조 때다. 성종보다 앞선 일이다.

③ O 해설 경국대전을 완성해 반포한 왕은 성종이다. 성종은 집현전의 역할을 잇는 홍문관의 직제를 고쳐, 학문을 연구하고 왕과 신하가 함께 공부하는 경연을 맡게 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

④ X 해설 젊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휴가를 주어 책을 읽게 한 사가독서제는 세종 때 처음 시행했다. 성종 때의 일이 아니다.

⑤ X 해설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는 탕평비를 성균관 앞에 세운 왕은 영조다. 조선 후기의 일이다.

20 조선전기 · 4대 사화 정답 ⑤

① X 해설 1차 왕자의 난은 1398년 태조가 막내아들 방석을 세자로 세운 데 반발해 이방원이 일으켰다. ㉠은 어린 왕이 즉위해 어머니가 수렴청정을 한 일로, 자료 속 왕은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한 명종이다. 왕자의 난과는 관계가 없다.

② X 해설 황사영 백서 사건은 1801년 순조 때 신유박해 중에 천주교 신자 황사영이 외국에 도움을 청하는 글을 쓰다 들킨 일이다. ㉡의 요승은 명종 때 문정왕후의 도움으로 불교를 일으킨 승려 보우를 말하므로 맞지 않다.

③ X 해설 예송은 현종 때 왕실 어른이 상복을 얼마 동안 입을지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벌인 논쟁이다. ㉢의 무거운 세금과 부역과는 관계가 없다.

④ X 해설 갑술환국은 1694년 숙종 때 남인이 물러나고 서인이 다시 권력을 잡은 일이다. ㉣은 명종 때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의 일이므로 맞지 않다.

⑤ O 해설 ㉤의 을사사화는 1545년 명종이 즉위한 직후 일어났다. 명종의 외삼촌 윤원형(소윤)이 인종의 외삼촌 윤임(대윤) 일파를 몰아내고 많은 선비를 죽였다. 그래서 윤임 일파가 쫓겨나는 과정을 조사하는 것은 알맞은 탐구 활동이다.

21 조선전기 · 세조와 성종 정답 ③

① X 해설 인조반정으로 북인이 몰락한 것은 1623년의 일이다. 자료는 상왕을 노산군으로 낮추고 영월로 보낸 1457년 세조 때 일이므로, 그 배경이 될 수 없다.

② X 해설 인현 왕후가 쫓겨나고 남인이 권력을 잡은 기사환국은 1689년 숙종 때다. 단종이 노산군으로 낮추어진 일과는 관계가 없다.

③ O 해설 자료의 상왕은 단종이다. 1453년 수양 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켜 김종서 등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뒤 왕(세조)이 되었다. 성삼문 등이 단종을 다시 세우려다 실패하자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낮추어 영월로 보냈다. 그래서 맞는 배경이다.

④ X 해설 이인좌를 중심으로 한 소론 강경파가 난을 일으킨 것은 1728년 영조 때다. 세조 때의 일과 관계가 없다.

⑤ X 해설 폐비 윤씨 사건으로 김굉필 등이 처형된 갑자사화는 1504년 연산군 때다. 단종이 노산군이 된 1457년보다 뒤의 일이다.

22 조선전기 · 조선 전기의 예술과 건축 정답 ①

① O 해설 자료에서 안견이 안평 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렸으며,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가 대비를 이룬다고 했다. 이 그림은 1447년에 그린 몽유도원도다. 왼쪽의 현실 세계에서 오른쪽의 복숭아꽃 핀 이상 세계로 이어지는 모습이 펼쳐져 있다. 그래서 맞는 그림이다.

② X 해설 사진은 둥근 창이 난 소박한 집과 소나무·잣나무를 그린 김정희의 세한도다. 제주도에 유배된 김정희가 변함없이 자신을 챙긴 제자 이상적에게 그려 준 조선 후기 그림이다.

③ X 해설 사진은 안개 속에 기둥처럼 높이 솟은 바위 봉우리를 그린 산수화다. 안평 대군의 꿈속 복숭아꽃 동산을 그린 몽유도원도와는 다른 그림이다.

④ X 해설 사진은 바위에 엎드려 물을 바라보는 선비를 그린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다. 조선 전기 그림이지만 안견이 그린 꿈 이야기 그림이 아니다.

⑤ X 해설 사진은 비가 갠 뒤 안개가 걷히는 인왕산을 그린 정선의 인왕제색도로 보인다. 우리 산천을 실제 모습대로 그린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다.

23 조선전기 ·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정답 ③

① X 해설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평양성을 되찾은 것은 1593년 임진왜란 때다. 자료에서 김상용이 세자빈과 봉림 대군을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했다가 이듬해 강화성이 함락되자 순절했다고 했으니 이 전쟁은 병자호란이다. 임진왜란의 일은 맞지 않다.

② X 해설 강홍립이 명을 도와 사르후 싸움에 나선 것은 1619년 광해군 때다. 병자호란보다 앞선 일이다.

③ O 해설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에 갇히자 전라 병사 김준룡은 군사를 이끌고 올라와 용인 광교산에서 청군을 무찔렀다. 그래서 이 전쟁 중의 일로 맞다.

④ X 해설 김종서가 두만강 일대에 6진을 개척한 것은 조선 세종 때로, 여진을 몰아내기 위해서였다. 병자호란과는 관계가 없다.

⑤ X 해설 곽재우, 김천일 등이 의병장으로 싸운 것은 1592년에 시작된 임진왜란 때다. 병자호란이 아니다.

24 조선후기 · 정조의 개혁 정답 ⑤

① X 해설 청과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것은 1712년 숙종 때다. 자료에서 아버지 사도 세자의 무덤인 현륭원을 참배하고 화성 행궁에 머물렀다고 했으니 (가)는 정조다. 정조의 일이 아니다.

② X 해설 경국대전 뒤에 바뀐 법을 모아 속대전을 펴낸 왕은 영조다. 정조의 아버지 사도 세자는 영조의 아들이므로, 정조보다 한 대 앞선 왕의 일이다.

③ X 해설 왕실의 위엄을 높이려고 경복궁을 다시 지은 것은 고종 때 흥선 대원군이다. 정조의 일이 아니다.

④ X 해설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으려고 삼정이정청을 둔 것은 1862년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난 뒤 철종 때다. 정조의 일이 아니다.

⑤ O 해설 정조는 아버지 사도 세자의 무덤을 수원 화산으로 옮겨 현륭원이라 하고, 그 가까이에 화성을 쌓았다. 또 1791년 신해통공을 내려 육의전을 뺀 시전 상인들이 가진 금난전권을 없애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

25 조선후기 · 대동법 정답 ⑤

① X 해설 양반에게도 군포를 물린 것은 흥선 대원군의 호포제다. 자료에서 광해군 때 이원익이 선혜청을 두고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하자고 했다고 했으니 (가)는 대동법이다. 대동법은 군포가 아니라 공납을 바꾼 제도다.

25 해설 계속 정답 ⑤

② X 해설 수신전과 휼양전을 없앤 것은 세조 때 직전법을 실시하면서다. 현직 관리에게만 땅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주는 제도로, 대동법과 관계가 없다.

③ X 해설 땅을 측량하는 양전 사업을 하고 땅 주인에게 지계를 발급한 것은 대한 제국의 광무개혁 때다. 대동법과는 관계가 없다.

④ X 해설 그해 농사가 잘되고 못된 정도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나누어 거둔 것은 세종 때 만든 연분 9등법이다. 대동법이 아니다.

⑤ O 해설 대동법은 집집마다 특산물을 바치던 공납을, 가진 땅의 넓이에 따라 쌀이나 베, 돈으로 내게 한 제도다. 나라는 거둔 쌀로 공인에게 값을 치르고 필요한 물건을 사들였다. 그래서 관청에 물품을 대는 공인이 나타나는 배경이 되었다.

26 통합 · 시대 통합 정답 ④

① X 해설 (가)는 상왕(태종)이 이종무를 보내 대마도를 치게 한 1419년 일이고, (나)는 김방경이 원나라 군대와 함께 일본 원정에 나선 고려 후기 일이다. (나)가 (가)보다 훨씬 앞서므로 (가)로 시작하는 순서는 맞지 않다.

② X 해설 (가) 대마도 정벌은 1419년 조선 세종 때 일이다. 그보다 앞서 고려 후기에 (나) 김방경의 일본 원정(13세기)과 (다) 최무선의 진포 싸움(1380)이 있었다. 그래서 (가)가 맨 앞에 올 수 없다.

③ X 해설 (라) 김시민의 진주성 싸움은 1592년 임진왜란 때 일이고, (다) 최무선이 화포로 왜구 배를 불태운 진포 싸움은 1380년 고려 우왕 때 일이다. (다)가 (라)보다 앞이므로 (라)-(다) 순서는 틀렸다.

④ O 해설 (나) 김방경이 홀돈·홍다구와 함께 일본 원정에 나선 것은 13세기 고려 후기, (다) 진포 싸움은 1380년, (가)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은 1419년, (라) 김시민의 진주성 싸움은 1592년이다. 그래서 (나)-(다)-(가)-(라)가 맞는 순서다.

⑤ X 해설 (다) 진포 싸움(1380)이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보다 앞서 (나) 김방경의 일본 원정이 있었고, (가) 대마도 정벌(1419)은 (라) 진주성 싸움(1592)보다 앞선다.

27 조선후기 · 중농주의 실학 정답 ④

① X 해설 『마과회통』은 정약용이 홍역의 증상과 치료법을 모아 1798년에 펴낸 의학책이다. 인터뷰 주인공은 『성호사설』에서 과거제를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 가운데 하나로 꼽은 이익이므로 맞지 않다.

27 해설 계속 정답 ④

② X 해설 『의산문답』은 홍대용이 쓴 책이다. 홍대용은 지구가 돈다는 생각을 펴면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하였다. 이익의 저술이 아니다.

③ X 해설 『발해고』를 써서 신라와 발해를 함께 「남북국」이라 부른 사람은 유득공이다. 이익과는 관계가 없다.

④ O 해설 자료의 「성호사설」, 「여섯 가지 좀」이라는 말로 주인공이 성호 이익임을 알 수 있다. 이익은 『곽우록』에서 한 집이 먹고살 만큼의 땅을 영업전으로 정해 사고팔지 못하게 하자는 한전론을 내놓았다.

⑤ X 해설 『금석과안록』에서 북한산비가 신라 진흥왕 순수비라는 것을 밝힌 사람은 추사 김정희다. 이익의 일이 아니다.

28 조선후기 · 서민 문화의 발달 정답 ①

① X 해설 한글 소설과 판소리가 유행하고 신재효가 판소리를 정리한 「이 시기」는 조선 후기다. 계미자는 1403년(태종 3년) 주자소에서 만든 구리 활자로, 조선 초기의 일이다. 그래서 조선 후기 모습으로 알맞지 않다.

② O 해설 송파 산대놀이는 조선 후기 서울 송파 장터에서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크게 공연된 탈놀이다. 장시가 커지면서 이런 놀이도 함께 퍼졌으므로 조선 후기 모습이 맞다.

③ O 해설 도고는 큰 돈으로 물건을 한꺼번에 사들여 값을 마음대로 올리던 큰 상인이다. 상업이 발달한 조선 후기에 많이 나타났다.

④ O 해설 조선 후기에는 역관·의관 같은 중인들이 시사라는 모임을 만들어 시를 짓고 문집을 펴냈다. 중인의 문화 활동이 활발해진 조선 후기 모습이 맞다.

⑤ O 해설 조선 후기 농민들은 인삼, 담배 같은 작물을 팔기 위해 길렀다. 시장에 내다 팔 작물(상품 작물)을 기르는 일이 늘어난 것이 이 시기 농업의 특징이다.

29 근대 · 흥선 대원군의 정책 정답 ④

① X 해설 영국이 러시아를 막는다며 거문도를 불법으로 차지한 것은 1885년 일이다. (나) 척화비를 세운 1871년보다 뒤이므로 두 사건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다.

② X 해설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한 것은 1875년 일이다. 척화비(1871)보다 뒤이며, 이 사건을 빌미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다.

29 해설 계속 정답 ④

③ X 해설 러시아가 용암포를 빌려 달라고 요구한 것은 1903년 일이다. 러일 전쟁 바로 앞의 일로, (가)와 (나) 사이가 아니다.

④ O 해설 (가)는 익성군(고종)이 왕위에 오르고 아버지 흥선 대원군이 봉작을 받은 1863년, (나)는 신미양요 뒤 종로에 척화비를 세운 1871년이다. 오페르트가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파헤치려 한 것은 1868년이므로 그 사이에 들어간다.

⑤ X 해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1882년에 맺어졌고, 그 뒤 1883년 미국 공사 푸트가 조선에 왔다. 척화비(1871)보다 뒤의 일이다.

30 근대 · 임오군란 정답 ⑤

① X 해설 하도감은 별기군의 훈련 장소였고, 구식 군인들이 차별 대우에 맞서 일으킨 (가)는 1882년 임오군란이다. 임오군란은 밀린 급료와 차별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된 봉기로, 입헌 군주제를 세우려는 운동이 아니다.

② X 해설 조선 총독부의 방해로 실패한 것은 일제 강점기의 민립 대학 설립 운동 같은 일이다. 임오군란은 조선 총독부가 생기기 훨씬 전인 1882년 일이다.

③ X 해설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틈타 일어난 것은 1884년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의 갑신정변이다. 임오군란과는 다른 사건이다.

④ X 해설 홍범 14조는 1894~1895년 제2차 갑오개혁 때 발표된 개혁 방향이다. 임오군란과는 관계가 없다.

⑤ O 해설 임오군란 때 일본 공사관이 공격받자, 일본은 1882년 제물포 조약을 맺어 배상금을 받고 공사관을 지킨다는 이유로 군대를 머물게 하였다. 그래서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하게 된 계기가 맞다.

31 근대 · 동학 농민 운동 정답 ④

① X 해설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 모인 것은 1894년 가을, 동학 농민군이 일본을 몰아내려고 다시 일어났을 때다. (나) 황토현 싸움보다 뒤의 일이다.

② X 해설 교정청은 1894년 6월, 전주 화약을 맺은 뒤 정부가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며 만든 기구다. 황토현 싸움(1894년 4월)보다 뒤다.

③ X 해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것은 1894년 6월(음력)로, 청일 전쟁 바로 앞의 일이다. 황토현 싸움보다 뒤이므로 (가)와 (나) 사이가 아니다.

31 해설 계속 정답 ④

④ O 해설 (가)는 최시형이 교조 최제우의 억울함을 풀자며 연 1893년 보은 집회, (나)는 1894년 4월 동학 농민군이 관군을 크게 이긴 황토현 싸움이다. 그 사이인 1894년 1월, 고부 농민들이 군수 조병갑의 횡포에 맞서 만석보를 부수었다.

⑤ X 해설 공주 우금치에서 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에게 진 것은 1894년 11월 일이다. 황토현 싸움보다 한참 뒤다.

32 근대 · 정미7조약과 군대 해산 정답 ⑤

① X 해설 (가)는 병인양요(1866)와 강화도 조약(1876) 사이다. 자료는 네덜란드 평화 회의에 간 한국인 세 사람, 곧 1907년 헤이그 특사 이야기이므로 이 시기가 아니다.

② X 해설 (나)는 강화도 조약(1876)과 한성 조약(1884) 사이다. 이 무렵은 개항과 개화 정책이 시작된 때로, 통감 이토가 있던 시기가 아니다.

③ X 해설 (다)는 한성 조약(1884)과 청일 전쟁(1894) 사이다. 통감부는 1905년 을사늑약 뒤에 생겼으므로 이 시기와 맞지 않다.

④ X 해설 (라)는 청일 전쟁(1894)과 러일 전쟁(1904) 사이다. 이때는 아직 통감이 없었고, 헤이그 특사는 1907년 일이다.

⑤ O 해설 수신인이 「통감 이토」이고, 네덜란드에서 열린 평화 회의에 한국인 세 사람이 와서 일본의 정책에 항의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1907년 고종이 이준·이상설·이위종을 보낸 헤이그 특사이므로 러일 전쟁(1904)과 국권 피탈(1910) 사이인 (마)에 들어간다.

33 근대 · 항일 의병 운동 정답 ⑤

① X 해설 「조선 혁명 선언」은 1923년 신채호가 쓴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다. 자료의 의병 부대는 이인영을 총대장, 허위를 군사장으로 삼은 1907년의 13도 창의군이므로 관계가 없다.

② X 해설 이만손이 영남 유생들을 이끌고 영남 만인소를 올린 것은 1881년이다. 『조선책략』이 퍼진 것에 반대한 위정척사 운동으로, 13도 창의군과는 다르다.

③ X 해설 상덕태상회는 박상진이 대구에 세운 곡물 가게로, 1915년에 만들어진 대한 광복회가 군자금을 모으고 연락하는 거점으로 썼다. 13도 창의군의 활동이 아니다.

④ X 해설 일본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내려 한 단체는 1912년 임병찬이 만든 독립 의군부다. 13도 창의군과는 다르다.

33 해설 계속 정답 ⑤

⑤ O 해설 이인영이 총대장, 허위가 군사장을 맡고 각 도 의병이 함께 서울로 나아가려 한 부대는 13도 창의군이다. 1907년 고종이 강제로 물러나고 군대가 해산되자 일어난 정미의병이 힘을 모아 만든 연합 부대다.

34 근대 · 을미사변과 아관 파천 정답 ③

① X 해설 영선사는 1881년 김윤식이 이끌고 청나라 톈진에 가서 무기 만드는 법을 배운 사절단이다. 자료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1896년 아관 파천 뒤 돌아오라고 청하는 상소이므로, 영선사는 그보다 앞의 일이다.

② X 해설 군국기무처는 1894년 제1차 갑오개혁을 이끈 기구다. 아관 파천(1896)보다 앞의 일이다.

③ O 해설 고종은 1897년 경운궁으로 돌아와 대한 제국을 세웠고, 1899년 황제가 군대와 법, 외교 등 모든 권한을 가진다고 밝힌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아관 파천 뒤의 일이므로 맞다.

④ X 해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1866년 미국 상선이 대동강에 들어왔다가 평양 관민에게 불탄 사건이다. 아관 파천보다 30년 앞선 일이다.

⑤ X 해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1882년 임오군란 뒤 청과 맺은 무역 규정이다. 아관 파천(1896)보다 앞선 일이다.

35 근대 · 경제적 구국 운동 정답 ①

① O 해설 (가) 황국 중앙 총상회는 1898년 서울 시전 상인들이 외국 상인으로부터 상권을 지키려고 만들었다. (나) 보안회는 1904년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막았고, (다) 국채 보상 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가)-(나)-(다)가 맞다.

② X 해설 (다) 국채 보상 운동은 1907년이고 (나) 보안회는 1904년이다. 보안회가 먼저이므로 (다)가 (나)보다 앞에 올 수 없다.

③ X 해설 (나) 보안회(1904)는 (가) 황국 중앙 총상회(1898)보다 뒤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나)로 시작할 수 없다.

④ X 해설 (가) 황국 중앙 총상회가 1898년으로 가장 앞선다. (나)를 맨 앞에, (가)를 맨 뒤에 둔 순서는 틀렸다.

⑤ X 해설 (다) 국채 보상 운동(1907)은 셋 가운데 가장 늦게 일어났다. 맨 앞에 올 수 없다.

36 근대 · 독립 협회와 만민 공동회 정답 ③

① X 해설 정우회 선언(1926)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단체는 1927년의 신간회다. 자료에서 러시아가 절영도를 빌려 달라고 한 것에 맞서고 이상재가 간부로 나온 (가)는 독립 협회다.

② X 해설 『만세보』는 1906년 천도교가 펴낸 신문이다. 독립 협회는 『독립신문』과 관계가 깊다.

③ O 해설 독립 협회는 1898년 관민 공동회를 열어 헌의 6조를 올리고, 중추원을 고쳐 의원 일부를 백성이 뽑게 하는 의회를 만들려 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

④ X 해설 어린이날을 만들고 소년 운동을 펼친 것은 1920년대 방정환과 천도교 소년회다. 독립 협회의 활동이 아니다.

⑤ X 해설 태극 서관은 신민회가 계몽 책을 펴내고 팔려고 운영한 곳이다. 독립 협회의 일이 아니다.

37 근대 · 근대 시설과 문물 정답 ④

① X 해설 (가) 기기창은 1883년 세운 근대식 무기 공장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를 펴낸 곳은 (다) 박문국이다.

② X 해설 (나) 제중원은 1885년 알렌의 건의로 세운 서양식 병원(처음 이름 광혜원)이다. 고종의 황제 즉위식은 1897년 환구단에서 열렸다.

③ X 해설 (다) 박문국은 1883년 세운 인쇄·출판 기관으로 『한성순보』를 펴냈다. 백동화를 만든 곳은 화폐를 찍던 전환국이다.

④ O 해설 (라) 중명전은 덕수궁 가까이 있는 서양식 건물이다. 1905년 일본이 이곳에서 을사늑약을 강제로 맺게 하였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

⑤ X 해설 (마) 원각사는 1908년 문을 연 서양식 극장으로, 신극 「은세계」가 공연되었다.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은 1926년 단성사에서 처음 상영되었다.

38 일제 · 1910년대 무단 통치 정답 ④

① X 해설 원수부는 1899년 대한 제국 때 황제가 군대를 직접 거느리려고 만든 기구다. 자료의 판결은 「조선 태형령」에 따라 태형을 내린 것이므로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이고, 원수부는 그보다 앞의 일이다.

② X 해설 신간회는 1927년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힘을 합쳐 만든 단체다. 조선 태형령은 1920년에 없어졌으므로 태형이 내려지던 시기와 맞지 않다.

38 해설 계속 정답 ④

③ X 해설 치안 유지법은 1925년부터 조선에 적용되어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누르는 데 쓰였다. 1910년대 태형 시기보다 뒤의 일이다.

④ O 해설 「구한국의 국권 회복」을 꾀했다는 이유로 조선 태형령에 따라 태형을 내린 판결이므로 1910년대다. 이 시기 일제는 군인 경찰인 헌병이 일반 경찰 일까지 맡는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였다.

⑤ X 해설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세워져 조선의 땅을 많이 차지하였다. 1912년 조선 태형령보다 앞서 세워졌으므로 판결이 내려진 시기에 있었던 일로 보기 어렵다.

39 통합 · 시대 통합 정답 ⑤

① O 해설 ㉠ 삼국 시대 나라가 운영한 교육 기관으로는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이 세운 태학이 있다. 태학의 설립 취지를 찾아보는 것은 알맞은 탐구다.

② O 해설 ㉡ 고려 때 관학을 위축시킬 만큼 컸던 사학으로는 최충의 9재 학당 등 사학 12도가 있다. 9재 학당의 수업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알맞다.

③ O 해설 ㉢ 조선의 관학인 성균관과 향교에는 강의하는 명륜당과 공자 등 성현에게 제사 지내는 대성전이 있었다. 두 건물의 기능을 알아보는 것은 알맞다.

④ O 해설 ㉣ 정부가 새 변화에 대응하려고 세운 학교로는 1883년 통역관을 기른 동문학, 1886년 외국인 교사를 불러 양반 자제를 가르친 육영 공원이 있다. 운영 목적을 분석하는 것은 알맞다.

⑤ X 해설 ㉤은 1895년 교육 입국 조서 뒤 정부가 세운 관립 학교다. 배재 학당(1885)과 이화 학당(1886)은 선교사 아펜젤러와 스크랜턴이 세운 사립 학교이고, 교육 입국 조서보다 먼저 세워졌다. 그래서 ㉤에 대한 탐구로 알맞지 않다.

40 일제 · 1920년대 문화 통치 정답 ⑤

① X 해설 서당 규칙은 1918년 일제가 서당을 통제하려고 만들었다. 자료는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6년으로 늘린 1922년 제2차 조선 교육령이므로, 그보다 앞의 일이다.

② X 해설 2·8 독립 선언은 1919년 도쿄 유학생들이 발표하였다. 제2차 조선 교육령(1922)보다 앞의 일이다.

③ X 해설 조선어 연구회는 1921년 12월에 만들어졌다. 제2차 조선 교육령(1922년 2월)보다 조금 앞서므로 「이후」의 일이 아니다.

40 해설 계속 정답 ⑤

④ X 해설 조선 여자 교육회는 1920년 차미리사가 여성 교육을 위해 만든 단체다. 제2차 조선 교육령보다 앞의 일이다.

⑤ O 해설 제2차 조선 교육령은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에 이상재 등이 우리 힘으로 대학을 세우자며 1923년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를 만들었다. 교육령 발표 뒤의 일이므로 맞다.

41 일제 · 임시 정부의 활동과 개편 정답 ④

① X 해설 중광단은 1911년 대종교 교도인 서일 등이 만주에서 만든 무장 단체다. 자료의 (가)는 교통부와 재무부를 두고 독립 공채를 펴낸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므로 관계가 없다.

② X 해설 서전서숙은 1906년 이상설이 북간도 용정에 세운 민족 교육 학교다. 임시 정부가 세워지기 전의 일이다.

③ X 해설 신흥 강습소는 1911년 신민회 회원들이 만주 삼원보에 세운 독립군 양성 학교로, 뒤에 신흥 무관 학교가 되었다. 임시 정부의 활동이 아니다.

④ O 해설 교통부, 재무부, 독립 공채라는 말에서 (가)가 1919년 상하이에 세운 대한민국 임시 정부임을 알 수 있다. 임시 정부는 미국 워싱턴에 구미 위원부를 두어 외교 활동을 펼쳤다.

⑤ X 해설 브나로드 운동은 1931년부터 동아일보가 벌인 농촌 계몽 운동이다. 학생들이 농촌에 가서 글을 가르쳤다. 임시 정부의 활동이 아니다.

42 일제 ·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 정답 ④

① X 해설 원산 총파업은 1929년 원산 노동자들이 벌인 큰 파업이다. 자료의 「시기」는 중일 전쟁(1937) 뒤 황국 신민 서사를 외우게 하던 때이므로 그보다 앞의 일이다.

② X 해설 미쓰야 협정은 1925년 조선 총독부와 만주 군벌이 독립군을 잡아 넘기기로 맺은 협정이다. 1930년대 후반보다 앞의 일이다.

③ X 해설 조선 형평사는 1923년 진주에서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며 만들어졌다. 중일 전쟁 시기보다 앞이다.

④ O 해설 중일 전쟁이 일어난 뒤 일제는 조선 사람에게 황국 신민 서사를 외우게 하였다. 1938년에는 국가 총동원법을 만들어 조선의 사람과 물자를 전쟁에 마음대로 끌어갔다. 그래서 이 시기의 일이 맞다.

42 해설 계속 정답 ④

⑤ X 해설 임시 토지 조사국은 1910년 토지 조사 사업을 하려고 세운 기관이다. 1930년대 후반보다 훨씬 앞의 일이다.

43 일제 · 조선 의용대 정답 ②

① X 해설 자유시 참변(1921)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대한 독립 군단이다. 자료의 (가)는 김원봉 등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으로 1938년 만든 조선 의용대이므로 관계가 없다.

② O 해설 조선 의용대는 1938년 한커우에서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 만든,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다. 1942년 김원봉과 대원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

③ X 해설 쌍성보 전투(1932)에서 중국군과 함께 싸운 것은 지청천이 이끈 한국 독립군이다. 조선 의용대의 활동이 아니다.

④ X 해설 한인 소년병 학교는 1909년 박용만이 미국 네브래스카에 세운 독립군 양성 학교다. 조선 의용대와는 관계가 없다.

⑤ X 해설 홍범도 부대와 함께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싸운 것은 1920년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다. 조선 의용대가 생기기 훨씬 전의 일이다.

44 일제 · 국어 연구와 조선어 학회 정답 ①

① O 해설 주시경의 영향을 받아 국어 운동에 나서고, 광복 뒤 국어 교과서를 만든 사람은 최현배다. 최현배는 조선어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붙잡혀 옥살이를 하였다.

② X 해설 1919년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을 호소하는 글을 보낸 것은 신한 청년당 대표 김규식, 그리고 곽종석·김창숙 등 유림의 파리 장서 운동이다. 최현배의 일이 아니다.

③ X 해설 복벽주의(왕정을 되살리자는 생각)를 내세워 독립 의군부를 만든 사람은 임병찬이다. 1912년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하였다.

④ X 해설 『한국통사』를 써서 나라를 빼앗긴 과정을 정리한 사람은 박은식이다. 최현배와는 관계가 없다.

⑤ X 해설 105인 사건은 1911년 일제가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를 꾸며 내 신민회 회원 등을 잡아들인 사건이다. 최현배의 일이 아니다.

45 현대 · 5·10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답 ⑤

① X 해설 사진 속 「우리나라 첫 번째 총선거」와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은 1948년 5·10 총선거를 가리킨다. ㄱ 좌우 합작 위원회는 1946년 여운형·김규식이 만든 단체로 이 선거를 이끌지 않았다. ㄴ 장면 정부는 1960년 7·29 총선거 뒤에 세워졌다. 둘 다 틀렸다.

② X 해설 ㄷ은 맞다.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으로 두 선거구의 선거가 무효가 되었다. 그러나 ㄱ은 틀렸다. 5·10 총선거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 치러졌고, 좌우 합작 위원회가 이끈 것이 아니다.

③ X 해설 ㄷ은 맞지만 ㄴ은 틀렸다. 장면 정부는 4·19 혁명 뒤 1960년 7·29 총선거로 세워진 정부다. 5·10 총선거로는 제헌 국회가 만들어졌다.

④ X 해설 ㄹ은 맞지만 ㄴ은 틀렸다. 장면 정부는 1960년에 세워졌으므로 1948년 5·10 총선거와는 관계가 없다.

⑤ O 해설 5·10 총선거는 1948년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 남한에서만 치러진 첫 민주 선거다. ㄷ 제주도에서는 4·3 사건 때문에 두 선거구가 무효가 되었고, ㄹ 헌법을 만들 제헌 국회의원을 뽑으려고 실시되었다. 그래서 ㄷ, ㄹ이 맞다.

46 현대 · 6·25 전쟁의 전개 정답 ②

① X 해설 애치슨 라인은 1950년 1월 미국 국무 장관 애치슨이 발표한 방위선으로, 한국이 빠져 있었다. 자료의 「이 전쟁」은 중국군이 들어온 6·25 전쟁이고, 애치슨 라인은 전쟁 전의 일이다.

② O 해설 중국군 개입 이야기에서 「이 전쟁」이 6·25 전쟁임을 알 수 있다. 전쟁 중 서울을 빼앗기자 정부는 부산을 임시 수도로 삼았다.

③ X 해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1953년 7월 정전 협정을 맺은 뒤, 같은 해 10월에 맺어졌다. 전쟁이 멈춘 뒤의 일이다.

④ X 해설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은 1968년 북한이 미국 정보함을 붙잡아 간 사건이다. 6·25 전쟁이 끝나고 한참 뒤의 일이다.

⑤ X 해설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는 1980년 신군부가 5·18 민주화 운동을 누른 뒤 만든 기구다. 6·25 전쟁과는 관계가 없다.

47 현대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정답 ②

① X 해설 (가)는 농지 개혁법 제정(1949)과 한일 협정(1965) 사이다. 자료는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마치고 제2차 계획에 들어간 해이므로 1967년이고, (가)가 아니다.

② O 해설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을 마치고 올해 제2차 계획을 시작한다는 내용이므로 1967년이다. 한일 협정(1965)과 100억 달러 수출 달성(1977) 사이인 (나)에 들어간다.

③ X 해설 (다)는 100억 달러 수출(1977)과 서울 올림픽(1988) 사이다. 제2차 경제 개발 계획이 시작된 1967년은 그보다 앞이다.

④ X 해설 (라)는 서울 올림픽(1988)과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1996) 사이로, 1967년과 맞지 않다.

⑤ X 해설 (마)는 OECD 가입(1996)과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체결(2007) 사이다. 이 무렵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이미 끝났다.

48 현대 · 전두환 정부 정답 ②

① X 해설 야당 총재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 것은 1979년 박정희 정부 때 일이다. 자료의 「정부」는 부천 경찰서 성 고문 사건(1986)과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1987)이 일어난 전두환 정부이므로 맞지 않다.

② O 해설 부천 경찰서 성 고문 사건을 숨기려 보도 지침을 내리고,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감추려 한 것은 전두환 정부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그해 10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③ X 해설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바탕으로 군정을 편 것은 1961년 5·16 군사 정변 뒤의 일이다. 전두환 정부가 아니다.

④ X 해설 평화 통일론을 내세운 진보당의 조봉암이 사형된 것은 1959년 이승만 정부 때 일이다.

⑤ X 해설 긴급 조치 철폐를 요구한 3·1 민주 구국 선언은 1976년 유신 체제 아래 박정희 정부 때 발표되었다.

49 통합 · 지역사 정답 ③

① X 해설 유형원이 『반계수록』을 쓴 곳은 전라도 부안 우반동이다. 자료의 지역은 전라 감영, 태조 어진을 모신 경기전, 풍패지관이 있는 전주이므로 맞지 않다.

② X 해설 견훤이 아들 신검에게 갇힌 곳은 김제 금산사다. 전주는 후백제의 도읍이었지만, 견훤이 유폐된 곳은 아니다.

49 해설 계속 정답 ③

③ O 해설 조선 왕실의 발상지, 경기전, 전라 감영으로 이 지역이 전주임을 알 수 있다. 1894년 동학 농민군은 전주성을 점령한 뒤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고 물러났다.

④ X 해설 기묘사화(1519)로 유배된 조광조가 사약을 받은 곳은 전라도 능주(지금의 화순)다. 전주가 아니다.

⑤ X 해설 임병찬이 최익현과 함께 의병을 일으킨 무성 서원은 태인, 지금의 정읍에 있다. 전주가 아니다.

50 현대 · 6·15 남북 공동 선언 정답 ②

① X 해설 남북 조절 위원회는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뒤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졌다. 자료는 오부치 일본 총리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에 합의한 1998년 김대중 정부 이야기이므로 맞지 않다.

② O 해설 일본 대중문화 개방, 오부치 총리와의 공동 선언으로 보아 김대중 정부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평양에서 첫 남북 정상 회담을 열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③ X 해설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은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 합의서와 함께 합의되었다.

④ X 해설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연 것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다. 김대중 정부의 정상 회담은 평양에서 열렸다.

⑤ X 해설 남북 이산가족이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한 것은 1985년 전두환 정부 때다. 예술 공연단과 함께 서울과 평양을 오갔다.